

# 미디어 융합 시대의 책의 활로

문학이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지식정보의 핵심역할 수행해야

글 한주리(언론학 박사)

미디어 융합은 이제 매우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미디어 융합은 기존의 기술·산업·서비스·네트워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이들 간에 새로운 형태의 융합 상품과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제는 매체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하나의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로 재매개화되면서 새로운 느낌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결국 매체의 변화와 디지털 융합은 콘텐츠를 어떻게 재가공하느냐하는 문제를 화두로 던진다. 디지털 융합으로 인해 산업의 가치사슬이 콘텐츠 중심의 수평구조로 재편됨으로써, 콘텐츠가 미디어 산업의 핵심영역으로 떠오르고 다양성이 가속화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매체 연계 및 다중 산업 연계라는 문화 콘텐츠의 다중 유통방식은 문화콘텐츠의 원형으로서 출판콘텐츠가 갖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한 글로벌 마케팅의 확산 및 지식·정보 출판콘텐츠의 활용전략은 비즈니스의 성공적 전략수립과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관련 업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출판 산업이 고부가가치 정보콘텐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 이유는 TV나 영화 혹은 드라마가 원작 도서에 기반하여 재매개되고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시리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최근 개봉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대중적 성공을 거둔 이 작품들 뒤에는 이러한 영화적 상상력을 제시한 문학이 있었다.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작품들이 모두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책'이라는 매체로 선보였던 것들이다. 결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은 작가의 아이디어에 서부터 출발한다.

한 권의 책에서 촉발된 감독의 영화적 상상력은 도서와는

다른 방식의 울림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공지영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영화 상영으로 인해 판매율이 다시 높아진 것처럼 도서시장의 확장을 촉발시킨다. 이처럼 문학 도서를 통해 영화, 드라마, 캐릭터 상품개발 등 파생상품이 개발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볼 때, 여러 장르 중에서도 문학이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지식정보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문학과 같은 콘텐츠의 확장은 다른 상품으로의 개발뿐만 아니라 매체의 변화 및 확장도 가져왔다. 서적 반품률이 40%에 달하는 일본 출판업계는 이제 종이책의 활로모색을 전자책 서비스 합류에서 도모하고 있다. 휴대전화 전자책 서비스에도 참여하는 등 전자책 서비스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신작을 서점까지 가지 않고도 볼 수 있고, 절판 작품을 전자책으로 공급받아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며, 출판계는 재고를 줄이고 베스트셀러를 낼 수 있는 상부상조의 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이는 올드 미디어(old media)의 콘텐츠가 새로운 미디어의 콘텐츠로 유입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를 나타냄을 뜻한다. 다시 말해, 올드 미디어의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매개(mediate)하도록 만드는 재매개(remedi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DMB 등 전자매체를 통한 문학의 향유는 인쇄 매체로 접하는 문학작품과는 다른 매체적 특징을 갖게 되지만, 결국 내용의 본질로서의 콘텐츠는 새로운 매체 안에 유입되고 지속성을 띤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문학은 영화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OSMP(One source multi product)의 매체 관계론 구도를 이끌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의 문학의 활로나 출판 산업의 주요 이슈도 결국은 이러한 '콘텐츠 환경의 역학관계' 속에서 그 존재가치가 오히려 더욱 확인해지기 때문이다. ■